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이 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위더링 하이츠』 속 집의 메타포

- 육체적,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정 연

# 『위더링 하이츠』 속 집의 메타포

- 육체적,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

정 이 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정 연

# 인준서

이정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12월

심사위원장 김혜진

(인)  


심사위원 노동욱



심사위원 정이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에밀리 브론테의 『위더링 하이츠』 (*Wuthering Heights*) (1847)은 언쇼 가족이 사는 위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와 린턴 가족이 사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 (Thrushcross Grange)를 이야기의 주된 배경으로 삼는다. 작품 속 인물간의 갈등 역시 위더링 하이츠의 구성원과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며, 소설은 총 3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위더링 하이츠』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집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어떻게 묘사되고 변화하는지 고찰한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재산 상속과 탈취를 위해 서로 경쟁하거나, 가부장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작품에서 가부장은 집을 소유하고 가족 구성원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가정 내 그의 영향력과 권한은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 가부장은 가족과 하인들의 신체적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은 자식과 아내를 합법적인 재산 상속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 감금하곤 한다. 이에 가부장의 폭력, 감금 등의 학대에 시달리는 하인이나 가족은 집에서 탈출 또는 복수를 시도한다. 따라서 집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투쟁이 끊이지 않는 장소이다. 본 논문은 “집“이라는 메타포가 어떻게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상징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집 자체가 어떻게 상속권으로 기능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위더링 하이츠』의 집은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금하고, 학대하는 공간인 동시에 구성원들이 애착을 느끼고, 그리워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연관되었다고 믿는 공간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고향으로서 집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집”의 메타포는 가장 젊은 신세대인 3세대 인물들에 의해서 변화한다. 3세대 캐서린 히스클리프, 헤어턴 언쇼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집의 상속권을 갈망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와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고 가정 내 구성원들이 가부장의 통제 아래 놓였던 것과 달리, 3세대는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며 유모 넬리 딘과 함께 워더링 하이츠, 스러시크로스 그레이니지를 공유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3세대가 성씨, 혹은 태어난 집에 따라 정체성을 정의했던 이전 세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집”의 의미와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를 제시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집의 메타포	8
1. 메타포로서 집의 성격	8
2. 워더링 하이츠의 양면성	14
3.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인지의 양면성	16
III. 영혼과 육체의 정체성	21
1. 집 없는 영적인 자유: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21
2. 영혼과 육체의 공존: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33
IV. 결론	37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 1818~1848)의 소설 『위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 (1847)의 주요한 배경인 위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Thrushcross Grange)는 상반된 외관과 분위기를 가졌다. 위더링 하이츠는 거친 자연 환경을 견디기 위해 투박하고 튼튼하게 지어졌고, 유서 깊은 언쇼 가문이 소유한 만큼 오래된 저택이다. 반면에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는 밝고 화려한 천국같은 장소로 묘사되며, 신흥 젠트리 계급인 린턴 가문의 소유이다. 상이한 외관과 특징을 가진 만큼 『위더링 하이츠』의 비평에서 두 저택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전 구버(Susan Gubar)는 페미니즘 비평서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 1984)에서 오랫동안 많은 비평가들이 『위더링 하이츠』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한 것을 지적한다(253). 따라서 저자들은 남성 중심 문화의 여성 혐오적 맥락을 비판하며 전통적인 해석을 반대로 읽기를 시도한다. 길버트와 구버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옥인 위더링 하이츠는 여성의 천국이고, 전통적인 천국으로서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는 여성의 지옥이다(262-72). 여성은 지옥이 아닌 가부장제, 남성의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이다(Gilbert&Gubar 259). 길버트와 구버는 『위더링 하이츠』에서 전통적인 천국과 지옥의 신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여성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한다.

밀턴(John Milton)의 작품 계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공간을 재해석한 저

자들과 달리, 본고는 『위더링 하이츠』의 두 저택이 공유하는 사회적 맥락과 “집”으로서 갖는 공통성에 초점을 맞춰 재해석을 시도한다. “집”의 공통점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길버트와 구버의 이분법적 해석 때문이다. 길버트와 구버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페미니즘 비평의 시각에서 전복하며, 작품을 양분하는 두 공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본논의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와 위더링 하이츠를 대립하는 양극단으로 정의하는 분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길버트와 구버에 따르면 두 저택은 천국과 지옥으로서 “모든 면에서 반대”를 이루고, 서로의 “극점”이라는 이분법 안에서 존재한다(273). 길버트와 구버는 위더링 하이츠를 반동적인 여성의 천국, 가부장제의 천국과 대립하는 전통적인 지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힌들리 언쇼, 히스클리프가 소유하는 위더링 하이츠는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힌들리 언쇼는 위더링 하이츠를 상속받은 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위계질서를 강화한다. 히스클리프는 위더링 하이츠를 소유한 뒤 아내 이사벨라를 집에 감금하고, 친자식을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쓰는 등 가부장에게 유리한 법과 사회적 인식을 철저히 이용한다. 무엇보다 히스클리프는 언쇼와 린턴의 핏줄을 가진 남성까지 억압하고 위해를 가한다. 히스클리프를 가족에서 하인의 신분으로 강등했던 힌들리는 히스클리프에게 집을 포함한 재산을 빼앗기고 채무자 신세로 전락한다. 그는 히스클리프와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은 언쇼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빚을 떠안은 채 히스클리프의 하인 신분으로 위더링 하이츠에서 지내게 된다. 이사벨라가 낳은 아들 린턴 히스클리프는 위더링 하이츠에 감금당하고, 재산 상속의 도구로 이용당한다. 길버트와 구버는 집 안에서의 감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분석할 때 2세대 캐서린에게 집중하고, 남성의 천국으로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가 어떻게 여성의 지옥으로 기능하는지 주목한다(271-79). 그러나 작중 가부장에 의한

감금, 신체적 자유의 박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워더링 하이츠이다. 또한 두 저택은 공통적으로 집을 소유한 가부장의 권한과 이익이 우선된다. 따라서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양극”으로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Gilbert&Gubar 273).

또한 본고는 집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사벨라 린턴에 대한 해석을 보충하고자 한다. 길버트와 구버의 비평에서 이사벨라 린턴은 짧게 언급된다. 이사벨라는 “캐서린의 패러디”이고, 전통적인 의미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이 지옥으로 추락하고 파멸하는 구조를 가졌다(Gilbert&Gubar 287-88). “천국의 아이”, 문명 세계의 딸 이사벨라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인 워더링 하이츠에서 지옥을 경험한다(Gilbert&Hubar 287-88). 그러나 본고는 두 저택의 공통성을 토대로 이사벨라의 행적을 분석한다. 길버트와 구버의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자면,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가부장제가 유리하게 작동하던 천국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사벨라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서 가부장의 혈연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렸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서 하인들에게 시중을 받고 명령하는 위치였던 그녀는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하인과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한다. 이사벨라는 남편의 성씨를 갖고, 남편의 집에서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길버트와 구버의 비평은 워더링 하이츠를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으로 분류하지만, 워더링 하이츠 또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와 같이 가부장제의 규범과 법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본고는 워더링 하이츠가 언제나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와 반대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반동적인 공간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더불어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 분석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외에도 더 넓은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비혈연 관계,

가부장제의 정상성에 속하지 못하고 비가시화되는 관계가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가문은 모두 비혈연의 타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고 경계한다. 본고는 대표적인 예시로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관계를 다룬다. 또한 두 저택을 양극으로 해석할 경우, 각 집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역학관계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집의 실소유자, 지배하는 주체에 따라 공간의 성격은 달라지고, 구성원 간의 관계 또한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설명하기 위해,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이 생활하는 두 저택은 가부장제의 규범과 위계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동질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한다.

작품의 가부장제 묘사에 대해 메린 윌리엄스(Merryn Williams)는 “『위더링 하이츠』는 가부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가족 구성원들을 억누르는지 보여준다”고 평했다(98). 또한 제임스 카바나(James H. Kavanagh)는 『위더링 하이츠』에 빠르게 급변하는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성격이 변하고 붕괴하는 과정이 드러난다고 평했다(88-9). 카바나에 따르면 가족은 전통적인 사회와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체계였기 때문이다(88). 본고는 이에 따라 『위더링 하이츠』의 가정, 가족이 머무는 집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인 동시에 전통적인 가부장 체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집과 가정 안의 폭력성에 대해서 스티비 데이비스(Stevie Davies)는 작품 초반부 록우드의 시선에서 묘사되는 위더링 하이츠가 “집, 구역, 그리고 그 소유자는 [가정에] 매장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트라우마의 지형을 표상”하며, 그 지형은 “가정의 맨틀 밑에 압축되고, 알려지지 않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상한다고 정의했다(78). 에밀리 레나-도지어(Emily Rena-Dozier)는 “고딕의 특징을 가진 위더링 하이츠와 반대되는 문명화된 가정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공통점으로 “집을 지키고 침입자를 위협

하는 개”의 존재를 지적했다(772). 워더링 하이츠보다 문명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개들이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캐서린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가정적인 공간”이 “고딕적인 공간만큼 폭력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Rena-Dozier 772). 베스 토거슨(Beth Torgerson) 또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재산을 지키고 캐서린을 공격한 “가부장제의 불독”을 지적했다(96). 이처럼 두 저택은 가정 내의 폭력을 내포한 공간이다. 위 선행연구에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폭력성은 개의 상징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고는 불독 외의 폭력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는 대립적인 면 이외에도 가부장제 사회라는 배경과 맥락 안에서 공유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근거로 언쇼, 린턴 가문 모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소설 속 배경인 19세기 영국의 장자 상속법은 가족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 장남에게 재산 상속이 우선시 되게끔 했다.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친아들이 없는 경우 재산 소유권은 딸의 남편 또는 딸의 아들, 혹은 친척 남성에게 상속되었다. 또한 두 가문 모두 집에서 여성의 지위와 정체성은 남성과의 관계에 따라 정의되고, 여성은 그 개인이 아닌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로 인식된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인 주체가 아닌 남성의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저택에서는 가부장이 가정 구성원을 집에 감금하거나 때리고,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워더링 하이츠』의 두 저택이 상반되는 외관과 가문의 역사를 가졌으나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동질성을 가졌다고 전제한다.

집은 폭력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며 애착을 갖는 공간이기도 하다. 집은 그리운 고향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비슷한 선행연구

로 그레이엄 타이틀러(Graeme Tytler)는 『위더링 하이츠』의 집을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한다. 타이틀러는 작품의 저택을 인간이 생활하는 물리적 배경, 재산으로서 “주택(house)” 과 인간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로서 향수를 갖는 “집(home)” 으로 구분한다(229-30). 또한 타이틀러는 재산으로서 집과 고향으로서 집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우열 관계로 인해 강제로 집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작품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했다(229-34). 그러나 타이틀러는 집을 분석할 때 역사적, 사회적 맥락보다 소설 내적으로 “집”의 기능에만 집중하며, 주요 인물들이 집(home)에 대해 갖는 애착을 “향수병(homesickness)”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본고는 작품 속 인물이 집에 대해 갖는 애착을 인물의 정체성과 연결 지어서 해석한다. 본고는 타이틀러의 논의와 같이 집을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하지만, 그 의미를 나누고 분석할 때 가부장제 사회의 맥락을 중요하게 이용한다.

드루 라모니카(Drew Lamonica)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택(house)” 과 인간이 애착을 갖는 “집(home)”의 차이를 언급하고 분석한다(96). “소설에서 집(home)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로서 주택과 구분되고, “가족구조와 혈연관계에서의 자아성취감”이다(Lamonica 96). 라모니카에 따르면 2세대 캐서린은 린던 가문과 언쇼 가문의 상호 거래로써의 결혼과 그 협상에 실패한 인물이다(95-6). 그녀가 위더링 하이츠의 “딸이자 여동생”에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인지의 숙녀”로의 물리적 이동과 지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끝내 실패했기 때문이다(Lamonica 96).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관련된 “그녀의 “고정된” 신원” 즉 언쇼의 정체성, 그리고 “어린 시절의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포기하지 못한다(96). 그러나 라모니카는 길버트와 구버를 인용하며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인지를 남성의 천국으로 정의하고, 캐서린이 천국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결론 내린다(96).

본고는 가부장제 사회의 배경에서 집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정의하

며, 이를 분석한다. 집은 상속권, 경제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집은 가부장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의 성격을 갖는다. 집의 또 다른 성격은 작중 등장 인물의 심상에 존재하는 고향이다. 고향으로서 집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이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현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또한 고향집은 현재의 가족, 집, 사회에서 정의된 정체성과 다른 과거의 정체성을 환기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성 인물들에게 결혼 전에 살던 고향집은 과거에 누린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즉, 작중 인물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 자신이 바라는 정체성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집의 이중적인 성격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고찰하고, 집에서 인물이 겪는 혼란과 내적, 외적인 갈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중적인 집의 메타포를 분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3세대의 결합이 어떻게 집의 성격을 바꾸었는지 규명한다. 3세대 이전까지 집은 가부장의 재산, 또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었으며 특히 2세대 인물들은 집의 소유권을 벌이고 끝없이 갈등하고 경쟁했다. 그러나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서로 재산을 두고 경쟁하지 않으며, 착취적이지 않고 동등한 이성애 결혼에 성공한다. 본고는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들의 결합이 어떻게 이중적인 집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지 고찰한다.

## II. 집의 메타포

### 1. 메타포로서 집의 성격

작품 속에서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답습한 작은 사회이다. 이 때문에 집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첫 번째로 집은 제정된 법에 따라 남성, 만아들에게 상속되는 재산이며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이다. 두 번째로, 집은 소설 속 인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서 인물들이 애착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집의 첫 번째 성격은 남성에게만 상속되는 재산이고, 가부장이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소유물이라는 사실이다. 남성만이 집을 상속 받고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특징이 따라붙는다. 하나는 집에는 경제적, 법적 우위에 따른 부계 혈연, 남성 중심의 서열이 작동한다는 전제이다. 다른 하나는 집에 소속된다는 것은 곧 남성의 부계 혈연, 즉 그의 가문과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지위는 집을 소유한 남성과의 관계, 지위에 영향받는다. 따라서 재산으로서 집의 특징은 상속권을 가진 가부장의 혈연 남성 중심의 서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부장의 영향력, 사회적 정체성의 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가부장이 독점한 재산과 법적 권한이 가족 구성원과 가부장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이 때문에 집 안에서 가부장의 영향과 권한은 절대적이다. 단적

인 예시로 힌들리가 칼로 넬리 딘을 위협하면서 “영국에는 가장이 집의 법도를 다스리는 걸 제한하는 법은 없다”고 외치는 장면을 들 수 있다(57-8). 『위더링 하이츠』에서 그려지는 가부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부장은 그의 소유인 집에 타인이 출입하고 기거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세대 언쇼가 고아 히스클리프를 가족의 울타리에 들인 것이 그 사례이다. 이처럼 구성원이 머무를 공간,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집에서 그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1세대 언쇼가 사망한 뒤 위더링 하이츠를 상속받은 힌들리가 히스클리프의 거처를 집에서 내쫓고, 그를 가족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하인 신분으로 강등시킨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가부장이 타인의 방문, 출입을 허락하고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손님을 선별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작품의 6장에서 1세대 린턴과 그의 가족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언쇼를 대하는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린턴 가족은 히스클리프를 위험한 침입자, 예비 범죄자, 도둑질하는 집시로 판단하는 반면, 캐서린 언쇼는 유서 깊은 언쇼 가문의 딸,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할 손님, 치료하고 보살필 환자로 대우한다. 또한 아내를 가진 가부장은 아내의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법적 우위를 가지며,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했다. 헬레나 미치(Helena Michie)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결혼 후 “이름 표기가 바뀌고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변화”와 함께 육체도 변화한다고 믿었다(Michie 420). 빅토리아 시대 “교회와 법률의 언어에서 결혼의 관습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육체(flesh)”가 되기를 요구받는 것이고, “결혼 뒤 그 육체는 남편의 것”이었다(Michie 420). 즉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의 일부이자 남성의 소유물로 재정의된다. 또한 미치의 분석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정체성이 남편의 부속물인 아내로 고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부장의 권한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와 차별, 폭력이 다수 포함된다. 가

부장의 소유물로서 집은 곧 폭력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응집된 공간이다. 본고는 집의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을 “가부장의 집”으로 명명한다.

또한 “가부장의 집”은 유형(有形)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가정의 분위기와 질서는 현재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꿔 말하면 가족 구성원은 누구의 집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집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세대 언쇼의 허락 아래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히스클리프가 1세대 언쇼의 사후, 힌들리 언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하인의 신분으로 강등된 것이 그 예시이다. 이처럼 누가 집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가정의 질서는 재편된다. 구성원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동이 일어나며, 집 안에서의 지위와 생활공간이 바뀔 수 있다. 가부장의 결정은 한 인간의 생활 반경, 더 나아가 삶을 뒤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이 지배하는 동안, 그가 재산권을 가진 당시에는 공고한 질서처럼 보였던 것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히스클리프와 힌들리의 경제적 우위가 뒤바뀌고, 힌들리가 집과 재산을 잃은 빚쟁이로 전락한 것이 그 예시이다. 따라서 재산으로서 집은 가부장이 우위를 점하고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장소이다.

두 번째 집의 성격은 고향의 상징성을 갖는다. 이때의 집은 인물의 현재 거주지, 법적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일 경우, 과거와 현재가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거나, 현재의 처지로는 갈 수 없는 공간일 수 있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정체성, 신분과 불일치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은 집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히스클리프와 결혼한 이

사벨라가 여전히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자신의 “진정한 집(my right home)”으로 생각하는 것(133),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서 린턴 부인으로 불리는 2세대 캐서린이 워더링 하이츠를 그림고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표현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96-8). 특히 소설의 12장에서 캐서린은 어린 시절 워더링 하이츠의 공간, 그곳에서 히스클리프와 보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데, 이때 워더링 하이츠는 현재 “너무도 변해버린” 자신이 변하기 이전의 과거, 순수했던 시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캐서린은 칠혹같은 밤인데도 자신에게는 “워더링 하이츠가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그녀의 상상 속에 워더링 하이츠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99). 즉, 고향으로서 집은 그리운 과거의 시공간, 실제 현실과 무관한 상상 속에서 원형을 간직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작중에서 고향으로서 집은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부장제 규범 안에서 무시된다.

고향으로서 집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작중 인물이 인식하는 고향으로서 집,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이다. 예를 들어 이사벨라 히스클리프, 2세대 캐서린 린턴은 현재 자신이 옛집에 살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고향에 대한 애착, 그리움 등 특별한 심상을 가지며 집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 짓는다. 집과 정체성을 연관 짓는 것은 여성 인물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당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 소유의 집에서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소유의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결혼 뒤 여성의 성씨는 남편의 성씨로 바뀌고, 여성은 이름 대신 남편의 부인으로 불리며, 거주지 또한 남편의 집으로 고정된다. 이 때문에 여성 인물들에게 고향집은 결혼 이전의 자유로운 생활, 남편에게 종속되기 이전 과거의 정체성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여성 인물들의 상상 속에서 과거의 집은 그들의 고향이자 기원으로 자리한다. 따

라서 재산으로서 집의 성격과 달리, 고향으로서 집은 상상 속에서 변치 않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고향으로서 집이 공간 외에도, 고향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의 인간관계를 함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비혈연 관계,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정의되지 않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비혈연 관계를 고향으로서 집의 특징에 포함시킨 이유는 2세대 캐서린이 워더링 하이츠를 그리워할 때, 히스클리프와 보냈던 시간과 그들의 관계를 함께 회상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비혈연 공동체는 혈연관계나 고용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중 인물이 유의미하게 여기는 관계,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는 관계를 의미한다. 첫 번째 특징의 예시는 히스클리프와 1세대 언쇼, 히스클리프와 헤어턴 언쇼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넬리의 관계, 세 번째 특징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에 해당한다. 덧붙여, 본고에서 비혈연 관계는 관계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비해 평가절하되는 관계, 혼인 관계나 혈연가족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가시화되는 관계를 통칭한다. 본고에서 비혈연 관계의 명칭은 가부장제 사회 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바깥의 존재들, 관계들을 망라한다.

비혈연 관계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가치 공유와 유대감, 즉 동질성의 여부에 달려있다. 비혈연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로 히스클리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1세대 언쇼가 리버풀에서 데려온 고아 소년으로 “언쇼의 죽은 아들의 이름인 히스클리프”를 받았지만, 언쇼의 성씨는 받지 못했다(30). 그럼에도 그는 친아들이자 맏아들인 힌들리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1세대 언쇼에게 사랑받으며 친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그가 워더링 하

이즈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비혈연 관계이고, 1세대 언쇼는 그에게 온정을 베풀지언정 그를 합법적인 자식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히스클리프의 가정 내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는 그가 “하인이자 자식으로서 언쇼 가족의 안쪽과 바깥에 동시에 존재” 하는 존재이고, 그의 “기원(origins)” 이 “중간(between)” 에 있다고 지적한다(123-24). 이안 워드(Ian Ward) 또한 가정 내 히스클리프의 예외성을 주목하며, 집 바깥에서 데려온 고아 히스클리프는 그 자체로 “불법성(illegitimacy)” 을 함의한다고 지적한다(52-53). 이 불법성이란 사생아를 의미한다. 워드는 19세기 영국 사회가 혼외 출산을 불법으로 제정한 것은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분석한다(51-2). 따라서 “어린 시절 죽은 아들 히스클리프 언쇼의 이름” 은 친아들로서 “부계 혈통 안에 존재하지만”, 성씨가 없는 고아 히스클리프의 존재는 가계도에 존재할 수 없고, 기록될 수도 없다(Ward 158). 즉, 히스클리프는 그 자체로 가부장제 규범을 위반하는 존재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비혈연 관계의 공동체는 현실의 법과 사회적 인식 앞에서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집은 혈연가족의 율타리이자 재산인 동시에 비혈연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혈연 공동체의 의미는 가족애에서 영혼의 유사성이라는 더 깊고 내밀한 영역까지 확장된다. 힌들리와 조셉의 방해, 히스클리프의 지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유대는 강해진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자신의 영혼이 같고, 그가 “나보다 더욱 나다운 자신 (he’s more myself than I am.)” 이라고 주장한다(63). 히스클리프 또한 캐서린을 자신의 영혼으로 여긴다. 이처럼 비혈연 관계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스스로 정의하는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비혈연 관계가 사회적 지위, 각부장의 꺾박 등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비혈연 관계가 영구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에드거 린턴과 결혼한 2세대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다시 만나지만 과거와 같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첫째로,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 둘째로, 에드거 린턴의 부인으로서 캐서린의 이해관계와 히스클리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갈등한다. 이처럼 비혈연 관계는 가부장제 규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시에 가부장제 법과 질서 앞에 취약한 양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2. 워더링 하이츠의 양면성

워더링 하이츠는 유서 깊은 지주 계급인 언쇼 가문의 소유 저택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와 가족 구성원 내 가부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 예시로 1세대 언쇼와 그의 아들인 2세대 힌들리 언쇼가 히스클리프를 대하는 차이와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둘의 차이는 비혈연 가족으로서 히스클리프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지의 여부이다. 1세대 언쇼는 작품에 등장하는 가부장 중에서 예외적으로 생면부지의 고아를 가족으로 들인 가부장이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히스클리프를 친자식처럼 대우하고, 그에게 죽은 아들의 이름을 주며 히스클리프와 비혈연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 그와 달리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결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자로 구분한다.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규범을 강화한다는 것에 있다. 1세대 언쇼는 친아들보다 히스클리프를 아꼈으나 끝내 히스클리프에게 언쇼의 성씨를 주지 않고,

그의 재산과 성씨가 핏줄을 통해서만 대물림 되게끔 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규범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의 아들 힌들리는 워더링 하이츠를 상속받은 뒤 히스클리프를 집 밖으로 내쫓고, 가족에서 하인으로 강등시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위계질서를 회복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양면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고아 히스클리프를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힌들리 언쇼의 추락과 지위의 박탈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도박 빚으로 히스클리프에게 전재산을 저당 잡힌 힌들리는 집안을 관리하고 지배하던 주체에서 히스클리프의 통제를 받는 객체로 강등당하고, 그의 세상은 뒤집힌다(108-10). 그동안 힌들리 언쇼가 누렸던 가부장의 권한, 가부장 남성에게 우호적이었던 법이 반대로 그를 벌하고, 과거 그가 히스클리프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히스클리프에게 멸시당한다. 힌들리와 히스클리프 관계의 전복은 가부장의 권위와 균건해 보이는 위상은 그 개인이 걸출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연관계와 유언장을 매개로 상속된 물질적 재산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또한 힌들리의 강등은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부장의 지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히스클리프는 힌들리가 남성이자 장자라는 이유로 누렸던 우월한 지위를 가부장제의 논리로 공격하고 박탈한다.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힌들리 언쇼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그의 소유였고, 선조들의 집이었던 워더링 하이츠에서 채무자 신세가 되었다. 전 재산과 삶의 주권을 잃은 그는 “유령처럼 낮이 나간 눈빛”을 하고서 죽은 듯이 살아간다(108). 그러나 힌들리는 그 자신을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주인으로 인식한다.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라는 객관적인 현실과 그가 생각하는 정체성에 괴리가 생겨나고, 그 괴리는 힌들리를 분노케 한다. 힌들리는 자신이 히

스클리프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복수의 명분이 있고, 히스클리프에게 “갓아줄 빛”이 있다고 생각한다(136). 그것은 변호사가 인정한 도박 빛이 아닌 복수의 칼날이며,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죽여서 채무 관계를 청산하길 바란다.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은 곧 가부장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고, 힌들리가 생각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17장에 이사벨라의 회상으로 서술되는 둘의 싸움은 피와 폭력이 낭자하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자정에 벌어진다. 히스클리프를 침입자로 규정하며 그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힌들리, 창문을 부수고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는 히스클리프의 싸움은 집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 경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힌들리는 끝내 히스클리프를 이기지 못하고, 혈투에서 얻은 상처로 죽음에 이른다. 힌들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헤어턴 언쇼 역시 히스클리프의 손에 떨어진다. 힌들리 언쇼가 남성 직계 후손이라는 이유로 언쇼 가문의 재산을 취할 권리를 얻었듯이, 헤어턴은 반대로 힌들리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상속 받고, 히스클리프의 하인으로 전락한다. 집은 힌들리가 권세를 누렸던 기반이자 원천이었으나,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는 헤어턴에게 구속으로 작용한다.

### 3.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양면성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는 거칠고 어두운 워더링 하이츠와는 대조적으로 햇빛이 들고 아름다운 중산층의 저택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지배하는 권력구조는 워더링 하이츠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질서이다. 두 저택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논리는 사실상 동일하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양면성은 이사벨라 린턴의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이사벨라 린턴은 고딕 로맨스의 문법인 낭만적인 연애와 결혼의 환상이라는 덮에 걸려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작중 히스클리프가 직접적으로 비아냥대며 언급하고 있다(118). 린턴 가문의 이름, 소속은 어린 시절 이사벨라가 간접적으로 가부장의 권력을 누리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사벨라는 린턴의 후손으로서 재산 상속의 매개가 된다는 이유로 히스클리프의 표적이 된다.

과거 이사벨라 린턴은 힌들리 언쇼처럼 가정 내의 지위를 근거로 히스클리프를 차별하고 배척했다. 어린 시절, 이사벨라는 창문을 엿보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히스클리프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며 아버지에게 그를 “지하실에 가둘 것”을 청한다(39). 린턴의 친딸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발언하는 이사벨라의 모습은 언쇼 가문의 하인 신분에 부모가 없는 고아 히스클리프와 대조된다. 소녀 이사벨라는 부유한 가부장의 친딸로서 히스클리프를 침입자로 평가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1세대 린턴의 사후, 에드거 린턴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주인이 되고, 이사벨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사벨라는 어린 시절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첫째로 에드거 린턴에게는 아내가 존재한다. 아내는 그의 재산과 이름을 상속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이사벨라는 결혼 뒤 린턴의 가계도에서 남편의 가계도로 편입되고, 남편의 집으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사벨라는 상속권이 없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과 그녀의 남편은 린턴 가문의 상속권에 개입할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79). 따라서 에드거 린턴에게 여동생 이사벨라의 존재는 상속권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이다. 성인 여성이 된 이사벨라는 어린 시절처럼 침입자를 판단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린턴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침입자를 린턴 가문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에드거 린턴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사벨라는 결국 에드거 린턴의 우려대로 히스클리프의 꾀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떠난다(104). 에드거 린턴은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여동생을 즉시 가문의 외부인으로 판단한다. 이제 에드거에게 이사벨라는 유산 상속의 경쟁 상대이며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벨라가 “로맨스의 남주인공”으로 상상했던 히스클리프는 “악마” 같이 그녀를 괴롭힌다(106-18). 이사벨라는 오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에드거는 “우리는 영원히 갈라섰” 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여동생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철저히 히스클리프 집안의 일원으로 대한다(114). 결과적으로 이사벨라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워더링 하이츠에 감금당한 채 남편에게 학대받는다. 이처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가부장제 규범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서 태어나 린턴의 지위를 누리던 이사벨라는 결혼 후 한순간에 린턴 가문의 위협으로 뒤바뀐다. 또한 아버지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누리고 가부장제의 수혜를 입었던 이사벨라는 아버지도 가문도 없는 “이름 없는 사내” 히스클리프에게 가부장제의 논리로 복수 당한다(79).

이사벨라의 사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지위 하락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부유한 가부장의 딸이자 여동생에서 “이름 없는 사내”의 아내가 되는 일은 신분 하락의 위협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낯선 이방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사벨라는 린턴의 이름과 집을 잃고 워더링 하이츠라는 낯설고 적대적인 땅에 갇혔지만, 누구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주디스 파이크(Judith E. Pike)는 이사벨라가 결혼 뒤 본래 “가문의 성씨, 지위,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집”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한다(360). 또한 이사벨라는 “린턴 아가씨(Miss Linton)”라는 이전의 정체성 또한 잃었으며, “하인의 신분으로 강등” 당했다고 지적한다(Pike

360-61). 결혼한 이사벨라는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한 첫날 그동안의 생활방식을 모조리 부정당하고, 하인 조셉의 비웃음을 산다(109-12). 또한 이사벨라는 결혼 첫날 히스클리프에게 침실을 “우리 방” 이라고 말했다가 그의 심기를 거스른다(114). 그녀는 히스클리프와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 부부로서 “우리” 라고 칭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불평등한 주종관계에 묶였다는 사실을 히스클리프의 성씨를 가진 후에 깨닫는다.

히스클리프가 지배하는 “가부장의 집” 워더링 하이츠에 갇힌 이사벨라는 외적, 내적으로 변화한다. 소설 14장에서 넬리 딘이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을 때, 넬리는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를 보고 “환경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꿔” 놓았다고 평한다(115). 신사로 보이는 히스클리프와 달리, 이사벨라는 흐트러진 옷차림에 정숙하지 못한 숙녀로 보인다. 또한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그를 저주한다. 파이크는 소설 14장에서 넬리 딘이 서술하는 이사벨라 히스클리프의 “변화(transformation)” 에 주목하는데, 결혼한 이사벨라는 외관뿐만 아니라 그녀가 갖춘 “덕(virtue)” 에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Pike 365). 그러나 파이크는 이사벨라의 외면적, 성격적 변화는 그녀의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로 초래된 것이 아니며, 남편의 학대, 남성 중심의 분위기가 팽배한 워더링 하이츠의 영향 때문으로 결론 내린다(Pike 365).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외적으로 이사벨라는 워더링 하이츠에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내면은 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를 증오하지만 힌들리의 살인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고, 히스클리프와 힌들리의 혈투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136-37). 무엇보다 이사벨라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탈출한 뒤,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진정한 나의 집(the Grange is my right home.)” 이라고 말한다(133). 이사벨라가 믿는 그녀의 정체성은 히스클리프가 아닌 린턴이다. 따라서 이사벨라의 증오와 저주는 히스클리프의 성씨를 가진 부인으로서 그에게 동화

된 것이 아니라, 가부장의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사벨라가 진정한 집으로 생각하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는 이사벨라 히스클리프를 반기지 않는다.

이사벨라는 “연옥을 빠져나온 영혼과 같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불빛을 향해 뛰어간다(141). 넬리 던은 그런 이사벨라를 “예기치 못한 손님 (intruder)”, “히스클리프 부인” 으로 명명한다(132). 이사벨라의 영혼이 향하는 곳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이고, 그녀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내내 고통받았다 해도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의 아내로 불린다. 히스클리프의 성씨를 갖고 남편의 관리 아래 놓인 이사벨라에게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문을 자유롭게 열고 출입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그녀는 그녀의 고향에서 불청객으로 정의된다. 이사벨라 히스클리프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린턴으로 생각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녀의 옛 이름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사벨라는 린턴과 히스클리프라는 두 개의 성씨, 거주지로서 두 개의 집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사벨라 린턴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히스클리프 부인으로서 모멸과 폭력을 감내하며 집에 갇혀 살 수도 없다. 법적 거주지인 워더링 하이츠, 진정한 집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 둘 중 어디에도 살아갈 수 없게 된 이사벨라는 고향을 떠나는 것을 택한다(142). 그러나 이사벨라는 아들의 이름을 린턴 히스클리프로 지을 만큼, 린턴의 정체성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160).

### Ⅲ. 영혼과 육체의 정체성

#### 1. 집 없는 영적인 자유: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작중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집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상태는 경제적으로 열악함과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에 속한다는 것은 곧 “가부장의 집”에서 가부장에게 관리받고 통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부장의 집을 떠나는 것, 그 집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부장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저항이자 독립 시도이다. 이사벨라 히스클리프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탈출한 뒤 런던으로 떠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부장의 집”과 가부장제 사회를 떠난 인물들이 있다. 2세대 캐서린 린턴과 히스클리프이다. 본고는 이들의 죽음이 “집 없는 영적인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명명한다.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죽음을 통해 사회와 집에서 벗어난다. 이들의 자유를 “영적인 자유”로 명명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자유는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못했다. 그들은 유행이라는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자유를 구가한다. 둘째로, 작중에서 영혼은 집에서 억압받고 감금당한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인물이 생각하는 자신의 본질이자 진정한 정체성이다. 특히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서로를 자신의 영혼으로 칭했다. 셋째로, 그들이 비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는 서로가 영혼으로 칭하는 정신적인 유대감, 동질성에 기반한다. 즉, 둘의 비혈연 관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선호되는 물질적, 경제적 가치와 상반된

다.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집 없는 영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어린 시절 그들의 유대감은 힌들리가 워딩 하이츠를 지배하던 시절에 더욱 깊어졌는데, “가부장의 집”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셉과 힌들리에게 혼나면서도, 함께 집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들판을 쏘다니며 어울린다. 따라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둘의 공동체, 유대감의 기저에는 “집 없는” 자의 설움과 고통, 해방감, 그리고 자유의 경험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가부장제의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서 서로에게 탈출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캐서린의 결혼과 히스클리프의 가출로 단절되었다.

캐서린이 결혼 뒤 린턴 가문의 재산으로 히스클리프를 돕겠다고 했을 만큼,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유대는 사회적 관습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그들의 비혈연 공동체, 히스클리프의 존재가 캐서린에게는 린턴 가문의 이득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니엘라 가로팔로(Daniela Garofalo)는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과 결혼한 뒤 경제적으로 히스클리프를 돕고자 했던 계획을 “자본주의자와 가부장제의 재산권”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832). 캐서린은 법에 따라 가부장과 그의 혈육이 독점하는 재산을 가족 바깥의 비혈연이자, 천대받는 집사 히스클리프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 가로팔로에 의하면 캐서린에게 “가족은 혈연(blood) 또는 결혼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833). 히스클리프는 가족이 아니지만 그녀와 같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캐서린과 부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된다.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 선택한 비혈연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혈연 관계는 법률

적, 사회적 한계를 초월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히스클리프의 가출로 단절되고, 캐서린의 계획은 무의미해진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히스클리프는 착취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으로 변모한 상태였고, 캐서린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린턴 가문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린턴 부인이 된 후였다. 둘의 교류는 3년 만에 재개되나 과거와는 상반된 양상을 띤다. 첫째로 히스클리프는 에드거 린턴의 허락을 통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 출입할 수 있고, 캐서린을 만날 수 있는 외부 손님이다. 과거와 달리 둘의 생활공간과 소속된 가문은 나뉘어졌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만남은 남편의 허락과 하인들의 감시하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로, 두 사람은 과거와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자신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사벨라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만류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히스클리프를 위해서가 아니다(88). 히스클리프가 이사벨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경우에 캐서린의 자식은 상속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히스클리프의 자식과 상속권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현재 히스클리프의 존재는 캐서린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캐서린은 린턴의 아내로서 자유를 제약받되 린턴 가문의 경제력을 공유받는 일원이다. 반면에 히스클리프는 린턴과 언쇼 가문의 재산을 빼앗고, 가부장과 그의 핏줄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유대감은 현실의 이해관계 앞에서 힘을 잃는다.

그 후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택할 것인지, 린턴을 택할 것인지를 남편에게 강요당한다. 라모니카는 이러한 양립불가능성, “제한된 자아를 강요당하는 것”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감옥”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108). 그리고 캐서린은 다음과 같이 에드거 린턴에게 저항한다.

“shit!” 린턴 부인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둬, 지금 당장. 당신이 그 이름

을 입 밖에 내면 창문에서 뛰어내려 끝장을 내겠어!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건 당신 거라고 해도 좋아. 그러나 당신이 나를 다시 안기 전에 내 영혼은 저 언덕 꼭대기에 가 있을 거야. 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당신이 필요할 때는 지났어…… 당신은 책 있는 데로 돌아가. 위안거리가 있어 다행이군. 당신이 가졌던 나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203)

“Hush!” cried Mrs. Linton. “Hush, this moment! You mention that name and I end the matter instantly by a spring from the window! What you touch at present you may have; but my soul will be on that hill-top before you lay hands on me again. I don’t want you, Edgar: I’m past wanting you. Return to your books. I’m glad you possess a consolation, for all you had in me is gone.” (*Wuthering Heights* 100)

캐서린은 비록 아내로서 그의 관리를 받고 그의 가문에 종속된 처지일지라도, 자신의 “영혼” 만큼은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에드거 린턴의 부인으로서 린턴 가문의 경제력과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누리는 대신, 남편에게 종속되고 통제당하는 현 상황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둘째로, 영혼에 대한 캐서린의 인식이 드러난다. 현실에서 그녀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영혼은 자유롭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 맥락에서 영혼은 육체, 물질적 가치, 현실의 제약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셋째로, 캐서린 린턴은 그녀의 몸, 그것도 남편의 자식을 임신 중인 몸을 인질로 남편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육체가 에드거 린턴에게 종속된 관리 대상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유효한 협박이다. 위의 장면에서 남편과 아내, 집 주인과 재산의 우열은 짧은 순간이지만 역전된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린턴 가문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아내의 역할을 거부한다.

에드거 린턴은 캐서린의 언행에 크게 놀라고, 단 3일 만에 달라진 캐서린의 상태를 넬리와 에드거 린턴은 단식과 열병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캐서린의 변화의 원동력이자 시발점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도 변해버렸다는 자각, 결혼 뒤 자신이 “낮선 사람의 아내”로서 본래 “나의 세상이었던 곳(위더링 하이츠)으로부터 추방되고 버려진” 처지가 되었다는 상실감이다(98). 또한 최초로 자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닌 그녀의 꿈이었다.

캐서린은 에드거와의 말다툼 뒤 절망에 빠져 침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쓰러져 잠든다. 꿈과 의식의 경계에서 그녀는 어렴풋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창문을 보고 자신이 어린 시절의 집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렇게 그녀의 의식은 12살, 아버지의 죽음 당시로 돌아간다(97-8).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꾸는 동안 잊고 있었던 현실의 기억이 터지듯 밀려오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광란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다(98). 또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에 질렸던 캐서린은 자신이 어린아이기가 아닌 린턴 부인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그럼 이건 사실이구나. 끔찍해!”라고 외친다(97). 고향에서 지내는 어린아이였다가 한순간에 에드거 린턴의 아내로 전락한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 뒤, 사회에서 남 부럽지 않은 린턴 가문의 부인이라는 지위는 캐서린에게 “낮선 사람의 아내”, “추방자”로 재정의된다(98). 이후 캐서린은 자신의 처지와 몸을 “부서진 감옥(shattered prison)”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125). 그녀의 몸은 병들었고, 만삭의 상태이며, 린턴의 아내로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 묶여 있다. 죽음이 가까워진 육체의 감옥은 부서진 상태이고, 영혼은 육체와 가부장적 집으로부터 해방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캐서린은 사후에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

“들어가게 해 줘요. 들어가게 해 줘요!”

“넌 누구냐?” 손을 뿌리치려고 애쓰면서 내가 물었다.

“캐서린 린턴이에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왜 ‘린턴’이라는 이름이 생각났을까? 린턴이라는 이름보다 ‘언쇼’라는 이름이 스무 번은 더 나왔을 텐데.) “저는 집에 돌아온 거예요. 황야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창을 들여다보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43)

“Let me in—let me in!”

“Who are you?” I asked, struggling, meanwhile, to disengage myself.

“Catherine Linton,” it replied, shiveringly (why did I think of *Linton*? I had read *Earnshaw* twenty times for Linton). “I’ve come home, I’d lost my way on the moor!”

As it spoke, I discerned, obscurely, a child’s face looking through the window. (*Wuthering Heights* 20)

캐서린은 죽음으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와 병든 육체에서 해방되었지만, 캐서린의 유령은 여전히 워더링 하이츠에 돌아가지 못하고 20년째 들판을 떠돌고 있다.

캐서린의 유령에 대한 선행연구 중 앨리슨 밀뱅크(Alison Milbank)는 빅토리아 시대 고딕 소설 연구의 관점에서 유령 캐서린을 “악령(phantom)”으로 칭하고, 워더링 하이츠를 “초자연적인 존재가 흡혈귀처럼 생명력을 흡수”하는 “고딕 저택(Gothic house)”으로 정의한다(162). 밀뱅크는 록우드의 악몽에 등장한 캐서린의 유령이 생생한 현실감을 가진 것에 주목하며, “안쪽과 바깥, 감옥과 자유,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초자연적 현상[유령]을 ‘현실’로 끌어올린”다고 분석한다

(Milbank 162). 토거슨은 작중에서 언급되는 유령, 흡혈귀 등 초자연적 존재를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 메타포로 분석한다. 토거슨은 에밀리 브론테의 에세이를 토대로 브론테가 당시 사회 구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90-4). “토지 소유에 기반한 가부장제의 병폐”를 상징하는 워더링 하이츠는 “질병(illness)”의 메타포를 가졌고, 이는 “인간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병을 유발하는” 문명사회의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Torgerson 94). 따라서 토거슨은 브론테가 흡혈귀와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러 유령이 되는지 탐구하고 해석한다(94-5). 본고는 유령을 여성 차별의 메타포로 분석하는 토거슨의 견해와 이분법적인 대답이 유령을 효과적으로 묘사한다는 밀뱅크의 견해에 동의하나 정체성에 관한 해석을 추가하고자 한다.

유령 캐서린은 초자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워더링 하이츠에 출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캐서린 린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법적으로 린턴 가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워더링 하이츠의 불청객이며 언쇼 가문 바깥의 외부인이다. 캐서린 린턴은 죽음을 통해 남편의 집과 감옥 같은 육체에서 빠져나왔지만, 고향집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령이 자유롭지 않으며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캐서린의 유령은 작중에서 록우드가 언급하듯이 세상의 법과 윤리에 위배되는 존재이고, 벌을 받는 존재에 가깝다(22). 캐서린의 유령은 록우드의 악몽에서 삶과 죽음, 꿈과 현실, 집 안팎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소녀의 모습을 한 채로 린턴의 이름을 말하는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마저 모호하게 만들며, 깨진 유리창 틈새로 손을 뻗어 출입과 교류를 시도한다. 가부장제 사회의 관점에서 캐서린의 유령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타자이며, 사유재산을 침범한 침략자이다. 하지만 캐서린 린턴의 유령이 워더링 하이츠를 침범한 목적은 재산이 아닌 고향으로서 집을 되찾기 위함이다. 그녀는 캐서린

린턴에게 허락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공간, 자유, 정체성을 되찾고자 한다. 어린 시절의 시공간에는 집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그것은 히스클리프와의 관계이며, 이들은 부부 또는 혈연 가족같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계도에 기록되지 않는 비혈연 관계이다. 캐서린의 유령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를 욕망하고 되찾으려 한다. 피를 흘리며 창문 너머로 손을 뻗는 공포스러운 유령의 모습은 록우드가 유령의 이름에 의아했던 것과 같이, 린턴이라는 성씨에 의문을 품게 한다(20). 가부장제의 규범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효력을 발휘할 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린턴의 성씨에 가려지고 억압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균열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캐서린의 유령은 악몽을 통해 가부장제 규범의 경계를 교란한다. 캐서린의 유령은 객관적인 현실, 가부장제의 규범과 개인이 상상하는 정체성을 역으로 뒤집은 모양새이다. 즉 유령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의 은유이다. 유령은 가부장제 사회 규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유령 캐서린이 히스클리프가 아닌 록우드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록우드는 타지 출신으로서 가문과 집에 얽힌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그가 캐서린에 대해 아는 것은 창문턱에 쓰여진 이름들(캐서린 언쇼, 캐서린 히스클리프, 캐서린 린턴)과 캐서린 언쇼의 어린 시절 일기가 전부이다. 즉, 록우드가 가진 배경지식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파편적인 지식이다. 그는 심지어 왜 유령이 말하는 캐서린의 성씨가 일기에서 본 것과 달리 “린턴”인지 의아해한다. 또한 록우드는 워더링 하이츠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는 히스클리프의 자식이나 하인이 아니며, 히스클리프에게 빚을 진 채무자의 신세도 아니다. 즉, 록우드는 히스클리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물이다. 따라서 유령 캐서린에게 록우드는 일종의 틈새로 기능할 수 있다. 그는 캐서린의 정체를 쉽게 판별할 수 없고, 가부장

의 허락 없이 창문을 열고 외부인을 받아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히스클리프는 가부장제 규범을 철저히 이용하는 가부장이다. 그는 결혼과 상속 제도, 심지어 친아들까지 이용해 두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었고, 그 후손들을 그의 통제권 아래 두고 있다. 히스클리프가 얻은 모든 부와 지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지위가 낮은 자들을 착취한 결과이다. 십대까지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언쇼와 린턴 가문의 가부장에게 차별받았던 약자로서의 정체성은 현재의 히스클리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록우드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클리프는 어린 시절 애칭이었던 “캐시(Cathy)”로 그녀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창문 밖을 향해 외치지만 세속적 가치와 사회 규범에 집착하는 가부장으로서는 그는 유령과 소통할 수 없다(23).

그런 히스클리프의 변화는 캐서린과 같이 자기 인식의 변화와 자기 고백에서 시작하고, 캐서린의 유령은 그 변화를 가속한다. 소설 33장에서 히스클리프는 넬리에게 자신이 복수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육체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이 더는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오랜 세월 “고립된 상태였던 마음”을 고백한다(247-48).

“나의 옛 원수들은 날 넘어뜨리지 못했지. 이제야말로 그들의 후손에게 복수를 할 때야.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기에? 난 때리고 싶지 않아. 손을 휘두르는 것이 귀찮아졌어! 이렇게 말하니 아량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 여태껏 애써 온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전혀 아냐. 난 그들의 파멸을 즐기는 기능을 상실했고, 쓸데없이 남을 파멸 시키기엔 너무 나태해졌을 뿐이야. (515)

“My old enemies have not beaten me; now would be the precise time to

revenge myself on their representatives: I could do it; and none could hinder me. But where is the use? I don't care for striking, I can't take the trouble to raise my hand! That sounds as if I had been labouring the whole time only to exhibit a fine trait of magnanimity. It is far from being the case: I have lost the faculty of enjoying their destruction, and I am too idle to destroy for nothing. (*Wuthering Heights* 247)

언쇼와 린턴 가문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 후손인 헤어턴 언쇼와 3세대 캐서린을 그의 통제 아래 둔 현재, 히스클리프는 경제적, 물리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히스클리프가 행한 복수의 방식은 경제적, 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히스클리프는 결혼과 친자식까지 복수의 수단—린턴 가문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2세대 캐서린의 자식까지 이용하며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나의 힘 아래 있을 때”, 마침내 후손들에게 마음껏 복수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복수의 의지를 상실한다. 그에게는 복수할 이유와 동기가 있고,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만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멸을 즐기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수 없게 된 것”을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변화로 명명한다(248). 그가 “더 이상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긴 싸움”이 “이제 끝나길 바란다”고 외치는 까닭은 그 자신의 변화를 넬리에게 토로하기 전의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248). 분노에 찬 히스클리프는 헤어턴, 3세대 캐서린과 눈을 마주치는데, 사촌지간인 두 사람의 눈은 서로 “굉장히 닮아” 있고, 그 눈은 2세대 “캐서린 언쇼의 눈”이다(246).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은 히스클리프의 화를 누그러뜨렸다” (246). 2세대 캐서린의 눈을 닮은 두 후손의 모습에 히스클리프는 무장해제된다. 그리고 히스

클리프가 넬리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언제나 “그녀(캐서린)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다(247). 그녀를 닮은 두 후손의 존재는 히스클리프의 상실감을 더 자극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더욱 심화” 시킨다(248). 2세대 캐서린의 존재와 그 부재는 히스클리프를 무력화하고, 그가 가부장의 권위와 폭력성을 내려놓는 계기를 제공한다.

히스클리프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히스클리프가 넬리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12장에서 캐서린이 어린 시절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간적인 광기에 빠졌을 만큼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다고 넬리에게 토로하는 장면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고립시켰고 매 순간 캐서린을 그리워했던 히스클리프의 모습은, 문을 걸어 잠근 침실에 홀로 누워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던 캐서린을 연상케 한다. 가장 강력한 가부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복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히스클리프의 선언 또한 캐서린이 린턴 부인의 지위를 추방자로 재정의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두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고립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넬리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과정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의지를 잃은 히스클리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 만이 남아있고, 그 소원의 성취를 바란다(248). 특이하게도 그의 소원은 죽음이 아닌, 현재 2세대 캐서린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영적인 접촉, 교류를 원하는 히스클리프의 관심사는 세속의 삶과 재산, 현실이 아닌 영혼, 유령으로 옮겨간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유령을 찾아 밤낮 구분 없이 밖을 돌아다니고,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고,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248-49). 캐서린이 침실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시간개념이 흐려졌듯이, 히스클리프 또한 현실의 시간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보다 그의 내면세계에 몰두한다. 그가 소유한 집과 멀어질수록, 그는 점차 캐서린의 유령을 보고 유령과 소통이 가

능해진다. 그는 황야에서 유령을 만난 뒤 전에 없이 기쁨으로 흥분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오고, 식사를 들다 말고 느닷없이 “정원으로 나가 서성인다”(249-50). 그는 식사를 거를수록 허기에서 생기를 얻는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히스클리프가 무엇을 만나고 되찾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작중에서 줄곧 평가절하되고 비가시화되었던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혈연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2세대 캐서린이 열병 환자 취급을 받았듯이 히스클리프의 주변인들 역시 육체와 행동으로 그를 판단한다. 그러나 캐서린과의 재결합,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는 “코앞에서 천국”을 보고 있다(251). 그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 다가갈수록 역설적으로 히스클리프는 생기를 얻는다.

3일 동안 식사를 거른 히스클리프는 사망하기 전날 새벽에 넬리에게 일방적으로 사후 장례 절차를 통보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다. 심지어 히스클리프는 그의 재산이 “지상에서 없어지길” 바란다(254). “집 없는 자유”는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과 소유 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날 때 얻을 수 있다.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에게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영혼의 자유를 말했다면, 히스클리프는 가부장으로서 그가 착취하고 강탈했던 재산을 포기하고 그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가부장의 집”과 육체에서 해방된다. 넬리가 캐서린의 옛 침실, 침대에서 발견한 히스클리프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얻은 영혼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열린 창문으로 비가 들이쳐 그의 몸을 적시고, 그는 눈을 뜬 채 미소 지은 채다. 그의 손은 창문을 향해 뻗어 있고, 바람으로 인해 창틀이 연신 손을 쥘지만, 손에는 생체기만 남은 뿐 피의 흔적은 없다. 이는 캐서린의 유령이 눈보라가 치는 밤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뻗어 피를 흘렸던 장면과 대칭을 이룬다. 캐서린의 유령이 출입이 금지된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했던 반면,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유령을 향해 집 밖으로 손을

뻗었다. 열린 창문처럼 뜨여진 그의 눈동자, 그리고 미소는 그의 죽음이 평화롭고 포용적인 과정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록우드가 유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막았다면,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유령과 함께 “가부장의 집” 과 그 육체에서 빠져나갔다. 결론적으로,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된 동기에는 비혈연 공동체의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 2. 영혼과 육체의 공존: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2세대의 인물들이 끝내 가부장제의 현실에 굴복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달리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가부장의 집에서 살아남는다. 두 사람은 복수와 과오로 얼룩진 부모 세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신세대이다. 이들은 두 가지 변화를 만든다. 하나는 집의 이중적인 성격의 통합이며, 다른 하나는 유령을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다.

집의 이중적인 성격의 통합은 인물에게 재산으로서 집과 고향으로서 집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변화는 동등하게 재산을 소유하는 둘의 결혼으로 가능해진다. 헤어턴과 캐서린은 새해에 결혼한 뒤 스키 크로스 그레이지로 이사할 예정이다(257).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전까지 『위더링 하이츠』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가부장제 안의 혈연 및 결혼 관계, 그 바깥의 비혈연 공동체 두 가지 형태였다. 전자는 법적,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권장되는 관계이며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작중에서 혈연관계는 재산 상속을 두고 경쟁하거나 적대하는 관계이다. 또한 작중에서 이성애 결혼은 여성이 자신의 성씨를 비롯한 과거의 정체성을 잃고,

낮선 집과 남편의 가계도에 이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는 아내가 경제적, 법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이다. 그 예시로, 친족간에 발생하는 상속 경쟁을 알지 못했던 3세대 캐서린은 친척 린턴 히스클리프에게 애정을 베풀고 헌신하지만 배신당한다. 3세대 캐서린의 남편이 된 린턴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을 자신이 소유하고 지배할 대상으로 바라본다(213-14). 결혼을 포함한 법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여성은 남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개이자 경유지로 기능하고, 재산으로서 집을 가질 수 없다. 한편 비혈연 공동체는 개인들의 상상,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비혈연 관계는 그 때문에 성씨에 따른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대표적인 예시로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결합 불가능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치부된다. 하지만 두사람은 성장기에 사회적 지위, 가족내 서열에 구애받지 않는 우정과 애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죽음을 통해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재결합하고, 가부장제 규범에 갇힌 육체에서 탈출한다.

집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족 내의 최연장자 남성이 재산을 상속받게끔 하는 법, 가부장이 가정 내의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승인하는 가부장제이다. 작중에서 사회 규범과 법은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의 편의와 이득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그러나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기존의 사회 규범과 법에 복무하지 않는다. 결혼 뒤 헤어턴의 고향인 워더링 하이츠가 아니라 스러시크로스 그레이н지로 이사한다는 것은 남편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부장이 홀로 집안의 일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에게 일방적인 이사, 남편의 가문에 종속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는 결정이다. 따라서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결합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남편과 여성의 우열 관계를 답습하지 않고,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헤어턴과 캐서린이 집의 이중적인 성격을 모순 없이 통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와 같이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청소년기가 그러했듯이, 3세대 후손들 또한 “가부장의 집”에서 억압당했으며 가부장의 감시를 피해 친밀감을 쌓았다. 서로에 대한 “친밀함”, “존중”을 가진 3세대의 결합은 작품에서 착취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은 최초의 이성애 결혼이고, 비혈연 공동체의 특징이 최초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다(241). 3세대 캐서린, 헤어턴은 작중에서 줄곧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고 외면당하던 비혈연 공동체의 특징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결혼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혈연 관계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에, 고향으로서 집은 그들의 성씨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재산 또한 그들의 성씨에 따라 나뉘지 않는다.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집은 동등한 주체이자 집의 소유자, 구성원으로서 합의에 따라 정의된다. 그 때문에 이들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함께 살아갈 집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듯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결혼의 성격을 바꾸었고, 더불어 이분법적인 집의 메타포를 바꾸었다. 2세대와 달리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변화를 끌어낸다.

3세대 후손들이 만든 위와 같은 변화는 현실에서 그들의 자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자유를 불어왔다. 히스클리프의 죽음 뒤, 워더링 하이츠는 더 이상 가부장이 독점하는 재산,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이 지배하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는다. 워더링 하이츠는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이 공유하는 재산으로 변모한다. 심지어 아직 미성년자인 헤어턴과 캐서린을 대신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하녀 넬리 딘이다. 3세대와 넬리 딘의 비

혈연 공동체는 소속 가문, 성씨, 성별 등 가부장제의 규범에 따라 집을 결정하지 않는다. 결국 워더링 하이츠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가 전복된 공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2세대 캐서린 유령의 출입을 막았던 가부장제의 규율은 사라졌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의 재회로 과거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유령은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워더링 하이츠 안팎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257). 유령들은 워더링 하이츠에 살면서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캐서린 유령의 출입을 거부했던 록우드와 달리, 현재 집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을 가진 넬리 딘은 유령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그 존재를 배격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넬리는 3세대가 성년이 되는 새해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음산한 집”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한다(257). 이제 워더링 하이츠는 몇 개월 뒤에는 소수의 하인들이 관리하는 빈집이 된다. 결과적으로 워더링 하이츠는 가부장제, 혈연 및 가족 관계, 경제적 가치 등 속세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비혈연 공동체의 유령들이 거니는 영적인 장소로 변모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머튼의 두 저택은 유령들의 워더링 하이츠, 3세대 후손들이 살아가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두 저택은 과거와 같은 대립 관계가 아니며, 현실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처럼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언쇼가 만든 대등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 비혈연 공동체의 유대감에 기반한 결혼은 집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산이자 고향으로 만든다. 어느 한쪽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둘의 관계는 재산으로서 집을 두고 경쟁하고, 고향을 끝내 되찾지 못했던 2세대와 달리, 집의 이중적인 성격을 화합했다. 따라서 3세대 후손들의 결합은 집의 메타포를 바꾸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 IV. 결 론

본 논문은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의 차이가 아닌 가부장제 사회 “집”으로서 갖는 동질성에 주목한 뒤, 집의 이중적인 성격을 분석한다. 길버트와 구버의 비평에서처럼 두 저택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경우, 각 집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사건들이 희석되고 한정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길버트와 구버는 3세대의 등장 이후 히스클리프가 힘을 잃는 것을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 속 사탄의 패배,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가 “올바르게” 정상화된 것으로 읽는다(298-301).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으로 읽는다면 헤어턴의 존재가 결린다. 그는 히스클리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친아버지보다 히스클리프를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는 언쇼의 후계자다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의 정체성은 하인 생활을 하던 과거의 히스클리프에 가깝다. 이런 헤어턴이 작품 마지막에 살아남고, 3세대 캐서린과 동등한 부부 관계를 가진 것을 천국의 승리로 읽을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길버트와 구버의 19세기 집에 대한 분석처럼 집을 여성이 감금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장소라는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았다(Gilbert&Gubar 85-8). 집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벨라는 폭력적인 워더링 하이츠에서 안전한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를 그리워했고, 2세대 캐서린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워더링 하이츠에서 누렸던 시간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캐서린은 “말을 잘 듣는 딸”은 아니었다(34). 그녀는 너그러운 가부장 아버지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길버트와 구버의 분석처럼 2차 성징 이전, 젠더 이분법과 규범

에서 자유로운 시기를 그리워한 것에 가깝다(271-72). 집에서 감금당하고 신체의 자유를 잃었어도 여성 인물들에게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 또 다른 집이 존재한다. 그러나 타이틀러는 이사벨라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이사벨라가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인지에 갖는 애착과 그리움에 의문을 제기한다(236). 워더링 하이츠에 갇히기 전까지 이사벨라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이인지에서 2세대 캐서린과 같등하며 집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Tytler 236). 타이틀러는 이사벨라가 런던으로 도망친 것을 집에 대한 애착 관계를 끊어내고 독립한 것으로 해석한다(236). 여성과 집의 관계를 독립으로 풀이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으나, 본고는 집의 성격에 집중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다룰 기회가 없었다.

본고는 길버트와 구버의 이분법을 탈피하고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나, 집의 이중적인 성격을 정의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분법으로 논문의 주제를 전개하게 되었다. “가부장의 집”과 고향으로서의 집의 차이가 그것이다. 둘 중 한쪽을 이상화하고 다른 한쪽을 악마화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나,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던 만큼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참고문헌 중 하나인 헬레나 미치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몸에 대한 글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집의 성격을 육체와 연결 짓고 고향으로서의 집을 영혼과 연결 지어서 주제를 심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미치의 이론은 집이 아닌 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문에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영적인 자유를 다루는 장의 캐서린 유령 분석은 선행연구를 보충하려는 시도였다. 본고에서는 고딕 소설의 장르적 특징에 집중한 밀뱅크의 연구, 가부장제와 질병의 메타포에 관한 토거슨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본고는 캐서린의 유령을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존재, 정체성으로서의 해석을 구체화하였다.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영혼의 상

태가 반드시 자유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싶었으나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여 유령과 비혈연 관계는 사회적, 법적으로 소외되고 승인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내포한다. 특히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는 제도권의 인정, 결혼제도와 연관 지을 때 퀴어 정체성을 내포한다고 읽을 수 있다. 퀴어 이론의 시각에서 『위더링 하이츠』를 비평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본고의 주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관계로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관계는 항상 2세대에게 가려지거나 2세대의 변주로 해석되는 3세대를 집의 성격과 연결 지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본고는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관계, 결합과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기에 인물 개인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넬리 딘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보충이 필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3세대 인물들의 능동성과 영향력을 재조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 참 고 문 헌

- 에밀리 브론테. 『위더링 하이츠』. 유명숙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0.
- Brontë, Emily. *Wuthering Heights*. edited by Richard J. Du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 Chung, Ewha. “Re-reading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Marriage and the “Traffic in Wome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62, no. 1, 2016, pp. 103-19.
- Davies, Stevie. *Emily Brontë*. New York,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8.
- Ebert, Lisa. *Ambiguity in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Brill Ferdinand Schöningh, 2020.
- Frith, Gillian. “Decoding *Wuthering Heights*.” *Critical Essays on Emily Brontë*. edited by Tom Winnifrith, New York: G. K. Hall & Co, 1997, pp. 243-62.
- Garofalo, Daniela. “Impossible Love and Commodity Culture in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ELH*, vol. 75, no. 4, 2008, pp. 819-40.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Veritas paperback ed., New Haven: Yale UP, 2020.
- Kavanagh, James H. *Emily Brontë*. New York: Basil Blackwell, 1985.
- Kermode, Frank. *The Classic: Literary Images of Permanence and Change*.

- New York: Viking Press, 1975.
- Lamonica, Drew, “*We Are Three Sisters*” : *Self and Family in the Writing of the Brontës*. Columbia: Missouri UP, 2003.
- Michie, Helena. “Under Victorian Skins: The Bodies Beneath.” *A companion to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edited by Herbert F. Tucker, Blackwell Publishing Ltd, 1999, pp. 405-24.
- Milbank, Alison. “The Victorian Gothic in English Novels and Stories, 1830-1880.” *The Cambridge Companion to Gothic Fiction*. edited by Jerrold E. Hogle, Cambridge: Cambridge UP, 2002, pp. 145-66.
- Moers, Ellen. *Literary Wome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6.
- Pike, Judith E. ““My name was Isabella Linton”: Coverture, Domestic Violence, and Mrs. Heathcliff’s Narrative in *Wuthering Heights*,”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 64, no. 3, 2009, pp. 347-83.
- Rena-Dozier, Emily. “Gothic Criticism: “*Wuthering Heights*” and Nineteenth-century Literary History.” *ELH*, vol. 77, no. 3, 2010, pp. 757-75.
- Sanger, Charles Percy. “The Structure of *Wuthering Heights*.” *Critics on Charlotte and Emily Brontë*. edited by Judith O’Neil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8, pp. 137-40.
- Smith, Andrew. *Gothic Literature*. Edinburgh UP, 2007.
- Stevenson, John Allen. ““Heathcliff is Me!”: *Wuthering Heights* and the Question of Likeness.”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 43, no. 1, 1988, pp. 60-81.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Harper Torchbooks, 1979.

- Torgerson, Beth. *Reading the Brontë Bod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Tong, Xiaoyan. "Heathcliff's Freedom in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 *Brontë's Studies*, vol. 41, issue 3, 2016, pp. 229-38.
- Tytler, Graeme. "House and Home in *Wuthering Heights*." *Brontë Studies*, vol. 40, issue 3, 2015, pp. 229-39.
- Van Ghent, Dorothy. "The Window Image in *Wuthering Heights*." *Critics on Charlotte and Emily Brontë*. edited by Judith O'Neil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8, pp. 65-8.
- Vine, Steven. "The Wuther of the Other in *Wuthering Heights*."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 49, no. 3, 1994, pp. 339-59.
- Ward, Ian. *Law and the Brontë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 Williams, Merryn.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Palgrave Macmillan, 1984.
- Wing-chi Ki, Magdalen. "Family Complexes and Dwelling Plight in *Wuthering Heights*." *Brontë Studies*, vol. 39, issue 3, 2014, pp. 202-12.

## ABSTRACT

### The Metaphor of House in *Wuthering Heights*: Defining Physical and Spiritual Identity

Lee Jeongye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1847) portrays the conflict of the novel through the house metaphor, which is framed as the opposition between the Earnshaw family living at Wuthering Heights and the Linton family at Thrushcross Grange. The novel spans over three generations in which the characters struggle to legally inherit, forfeit, and physically imprison one another within the confines of both houses, Wuthering Heights and Thrushcross Grange.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ze not only how the "house" metaphor serves as an entitlement to power and inheritance but also as terms of imprisonment that subordinate characters to serve as legal means of inheritance. The novel, however, breaks out of this conflict by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house that does not provide

entitlement nor serve to imprison its family members. Rather the novel's ending presents a young couple, who are freed from the legal and financial restrictions that each house represents. The young couple, Catherine Linton Heathcliff and Hareton Earnshaw, along with their substitute mother, Nellie Dean, together share possession of both houses as equal human beings. The new familial network members do not use or rely upon either of the two houses in the novel for their identity. Instead, the house metaphor, at the end of the novel, defies legal and socioeconomic borders and presents a new familial community that is no longer restricted by blood-related laws of inheritance and no longer dependent upon patriarchal biases of gender identity that designate roles within marriage and the family.